


※아산재단은 'SOS 복지지원사업'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.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.

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

안녕하세요.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. 2012년 이혼한 뒤로 혼자 아이들을 양육해 왔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들만 집에 있게 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. 게다가 병이 생겨 결국이 거둬지다보니 결국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.

근무 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기에 얼른 새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,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. 한부모양육수당 월 60만원으로는 네 식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도 아프니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. 잠이 부족해 매일 피곤하고 우울했습니다.

그러다 셋째가 다니는 드림스타트 상담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. 아이가 선생님께 우리집 사정을 얘기했나 봅니다. 상담 선생님은 제 사정을 듣고 구청 복지과를 연결해주셨고, 우선 급한 생계비를 아산재단의 SOS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상담 중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인다면 정신과 상담도 연결해주셨습니다. 진료를 받고 나서야 제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아산재단의 도움 덕에 생활비 걱정 없이 맘 편히 장질환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면 몸이 먼저 나아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복지과 상담 선생님도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합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 허영선 드림

